

## ‘朝鮮半島の文化’ 展示について : ある人類学徒の観点

著者	全 京秀
雑誌名	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巻	14
ページ	40-49
発行年	2000-07-24
URL	<a href="http://doi.org/10.15021/00002219">http://doi.org/10.15021/00002219</a>

## ‘朝鮮半島の文化’展示について：ある人類学徒の観点

全京秀（ソウル大校）

### 1. 序

博物館の展示というのは、一種の文化表象化の問題であると考えられる。当代に、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た人々が、どのような対象をいかに表現するかという過程と結果が博物館という制度の中で現れる。大阪にある国立民族学博物館が‘朝鮮半島の文化’に関する展示を行うことは、基本的には、日本で行われてきた民族学という学問の視覚を基礎としている。換言すれば、日本の民族学という観点から朝鮮半島の文化を如何に眺望しているかを理解できる機会を今度の展示が提供している。

この展示は 1997 年に組織された“「もの」を通してみた朝鮮民俗文化”という課題の共同研究会（研究責任者：朝倉敏夫）を基礎とし、共同研究会には日本各地の大学と美術館の専門家の参加と協力を幅広く集めている。この課題のため、特別に韓国の国立民俗博物館の学芸士を 1 年間招へいしたことも注目される。

1983 年に公開された朝鮮半島の展示室と 2000 年 3 月の同展示室を単純比較する過程を、上述した観点到適用してみるのが、本稿の基本的な立場である。単純比較というのは、視点を異にする二つの展示過程やそれに伴う研究者たちと展示専門家たちの努力過程を含むのではなく、表面的に現れた視点が異なる展示の比較を意味している。したがって、本稿は皮相的な観察とそれに準ずる分析の結果であることを正直に認めざる得ない。

### 2. 展示内容の交替とその意味

博物館の展示は、専門家が資料を収集し、それらをどのような論理にそって展示するのかを専門家自身が選択する。つまり、人類学者が現地研究を行ない、民俗誌を作成する過程で当面する収集と選択とほとんど類似する側面を見せている。収集の過程と選択の結果が展示として現れた民博の朝鮮半島の展示室が、いかなる目的と指向を持っているかという点は、展示を構成した基本的な概念の分析から読むことができる。

1983 年の展示内容は、祖父江孝男先生が述べた展示の基本原則によく反映されている。「現代の韓国の精神生活における二つの基本的な枠組となっている“民間信仰”

# '朝鮮半島의 文化' 展示에 對하여 : 한 人類學徒의 觀點

全京秀(서울大學校)

## 1. 序

박물관의 전시라는 것은 일종의 文化 表象化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대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과정과 결과가 박물관이라는 제도 속에서 구현된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國立民族學博物館이 '朝鮮半島의 文化'에 대해서 전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진행되어온 民族學이라는 학문의 시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환언하면, 일본의 민족학이라는 관점에서 조선반도의 문화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전시는 1997년부터 조직된 “「물건」을 통해본 朝鮮 民俗文化”라는 제목의 共同研究會(研究責任者: 朝倉敏夫)를 기초로 하고, 공동연구회에는 일본 각지의 대학과 미술관에 있는 전문가들의 참가와 협력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이 과제를 위하여 특별히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사를 1년간 초청하였음도 주목할만한 과정이다.

1983년에 준공 및 공개된 조선반도의 전시실과 2000년 3월에 공개된 조선반도의 전시실을 단순 비교하는 과정을 위의 관점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단순 비교라는 것은 시점을 달리하는 두 전시의 전시과정과 그에 부수되는 연구자들과 전시 전문가들의 노력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나타난 시점을 달리하는 두 전시의 비교라는 의미다. 따라서 본고는 피상적인 관찰과 그에 준하는 분석의 결과임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2. 展示 內容의 交替와 그 意味

박물관의 전시는 그 전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의 문제설정에 따라서 선택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인류학자들의 당시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의 말미에 민속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수집과 선택의 과정과 거의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수집의 과정과 선택의 결과가 전시로 나타난 민박의 조선반도 전시실이 어떠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전시를 구성한 기본적인 개념의 분석으로부터 판독될 수 있다.

と“儒教”の二つを大きな柱とし、それらの間に衣食住の物質文化を配列して、韓国の文化の構造を示すようにつとめた」[祖父江孝男 1984:299]。展示構成は民間信仰（文人像とドルハルバン、シャーマニズム）、芸能（仮面劇、農樂）、食生活（生産用具、食生活）、住生活（済州島の民家模型、文化圏、調度・家具、屏風）、衣生活（衣装）、儒教（祭祀）に立脚している。

基本的な観点の一つは、韓国文化の「構造」を展示という技法を通じて表そうとしたことである。しかし、厳密な意味で構造主義に立脚した構造の概念を論ずる必要はない。文化解釈という立場から共時性（synchronicity）に重点を置くという程度で理解するのが良いだろう。構造を満足させるために用いる文化項目は、民間信仰と芸能および儒教を含む信仰の側面と、食生活、住生活、衣生活を内容とする物質文化の側面であると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 1983 年の展示室は信仰と物質文化という二つの項目を基本軸として構造の概念を満足させようと努力したと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

2000 年の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の基本認識で提示された内容の中で、筆者が関心を持った部分は、1) プラスチック導入を基点とする現代文化の展示という点、2) 東アジアとの比較を越え、地域比較の目的をねらっている点である。新たに構成された 13 項目は“1.衣、2.食、3.住、4.生産用具、5.日用雑貨、6.人生儀礼、7.風俗、8.宗教・信仰（8-1 キリスト教文化、8-2 儒教文化、8-3 仏教文化、8-4 巫俗文化、8-5 その他）、9.芸能、10.都市文化、11.日本の植民地文化、12.海外在住の韓国人、13. その他”であるが、今回の展示で 11 と 12 項目は“民俗工芸”と“スポーツ文化”に代替された。

まず、現代文化の展示という枠を設定し、企画者である朝倉先生は‘伝統’を現在の視点から活動する文化的な力としての‘意味ある過去’と規定している。すなわち伝統というのは創っていくという脈絡で説得力があり、このような視覚は現在の文化を展示の中心とする基準と理論的に適合するだろう。日用雑貨、キリスト教文化、都市文化を重要項目に設定したのがこれに該当する。地域比較のため 1983 年展示室の中央にあった済州島民家を沖縄展示室の隣に移動させたのは良い試みである。このような試みは東アジアという枠の中で理解しようとする従来の韓国文化に対するイメージを、東アジアから離脱した枠へ誘導することによって、視野を拡大させる必要があるという共感をえるには充分であると考ええる。

‘意味ある過去’として伝統に対する認識問題を展示に導入しようとした試みは、過去の構造中心の概念からいくらか本質的な変化を試みている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1983년의 전시내용은 祖父江孝男선생이 진술한 전시의 기본원칙에 잘 반영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 정신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는 ‘民間信仰’과 ‘儒教’를 축으로 하여, 그 둘 사이의 의식주 물질문화를 배열함으로써 한국문화의 構造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祖父江孝男 1984:299]. 그 전시구성은 民間信仰(민간신앙, 문인상과 돌하루방, 샤머니즘), 藝能(가면극, 농악), 食生活(생산용구, 식생활), 住生活(제주도의 민가모형, 문화권, 조도, 가구, 병풍), 衣生活(의상), 儒教(조상제사)에 입각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구조를 전시의 기법으로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기본적인 관점의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構造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에 입각한 구조의 개념을 논할 필요는 없다. 문화해석이라는 입장에서 共時性(synchronic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문화항목으로서는 민간신앙과 예능 및 유교를 포함하는 신앙의 측면과 식생활과 주생활 및 의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물질문화의 측면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1983년의 전시실은 信仰과 物質文化라는 두 항목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구조의 개념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00년의 新[한반도문화] 전시의 기본인식에서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필자의 관심을 일으키는 부분은 1) 플라스틱 도입을 기점으로 하는 現代文化의 전시라는 점과 2) 동아시아와의 비교를 넘어서 地域比較의 목적을 겨냥하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열세가지 항목은 1. 의, 2. 식, 3. 주, 4. 생산용구, 5. 일용잡화, 6. 인생의례, 7. 세시풍속, 8. 종교.신앙(8-1. 기독교문화, 8-2. 유교문화, 8-3. 불교문화, 8-4. 무속문화, 8-5. 그외), 9. 예능, 10. 도시문화, 11. 일본의 식민지 문화, 12.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13. 그외”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의 전시에서 11과 12 항목은 각각 “민속문화”와 “스포츠문화”로 대체 전시되었다[朝倉敏夫 2000].

먼저 현대문화의 전시라는 틀을 설정하고, 기획자인 朝倉敏夫 선생은 ‘傳統’을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힘으로써의 ‘意味있는 過去’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통이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 시각은 현재 문화의 전시 중심이라는 기준과 이론적으로 적합하게 된다. 일용잡화, 기독교 문화, 도시문화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비교를 위해서 1983년 전시실의 제주도민가를 오키나와 전시실 옆으로 이동시킨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종래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동아시아를 벗어난 틀로 유도함으로써 시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る。新たな展示は、宗教と儀礼の部分を強化しながら、そのような文化項目の展示において通時性を補強する特徴を見せている。この部分で私たちはクラーク・ウィスラー (Clark Wissler) の年代領域 (age area) 概念を博物館という脈絡から想起する必要がある。博物館専門家として始まったウィスラーの人類学的業績が博物館展示の経験を基にし文化の表象化過程で時間概念を具現させた点と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新「朝鮮半島の文化」の展示は時間が経るにつれ、自然に蓄積され形成された時間の問題を提議し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

過去の展示において中心であった構造の概念に歴史という点を補強しようとする試みが新たな展示で反映されていると考えられ、新たな展示は構造史的な接近という立場として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点を支持できるもう一つの点は展示企画者が持っている韓国文化の“多重性”という用語の再検討からも推論できるだろう。

多重性という用語は空間的な多用さを意味することだと思われる。宗教の側面からシャーマニズムと仏教、儒教と近來したキリスト教に至るまで韓国文化の形成と進行に大きな影響力を与えていると思われる様々な宗教に対する展示技法は空間的な拡散だけではなく時間的な重層性も同時に内包し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シャーマニズムと関連した文化、仏教と関連した文化、そしてキリスト教文化に至るまで、時間的に重層的な状況を設定していると指摘せざるをえない。したがって多重性という表現よりは重層性 (multi-layeredness) という表現が、時間的な累積現象を説明するには適合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 3.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に提示された問題点

狭い面積に歴史性を含む立体的な文化展示をする作業は並大抵ではないだろう。それにもかかわらず、筆者は3つの問題点を提議することで、今後発展する展示室の未来を考えてみた。筆者が提議する問題はすでに展示企画者も悩んでいるだろう。

第1に、既存の展示を最大限に活用という意味で、過去の展示室の中央にあった済州島の民家を沖縄展示室の隣に移すことにより朝鮮半島の文化を見るうえで比較という基準を設定する意図を表明した。その試みの意図には観覧者にとって朝鮮半島の文化と東南アジア文化との比較を誘導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それによって、比較の観点を提供することを試みるとすれば、東北アジアとシベリアとの関連性に対しても比較す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例を挙げると、済州島の民家を南に拡張させる通路として利用することが可能であれば、シャーマニズムは北に

는 공감대를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의미있는 과거’로서의 전통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전시에 도입하고자 한 시도는 과거의 구조 중심의 개념에서 약간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전시는 종교와 의례 부분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문화 항목들의 전시에 있어서 통시성을 보강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클라크 위슬러(Clark Wissler)의 年代領域(age area) 개념을 박물관이라는 맥락 속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전문가로 시작한 위슬러의 인류학적 업적이 박물관 전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문화의 표상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을 구현해내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 新[한반도 문화] 전시는 시간이 경과됨으로서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형성된 시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의 전시에서 중심이었던 구조의 개념에 역사라는 점을 보강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전시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는 구조사적 접근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전시기획자가 고용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多重性”이라는 용어의 재검토에서도 추론될 수 있다.

다중성이라는 용어는 空間的인 다양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교의 측면에서 샤머니즘과 불교 그리고 유교와 근래한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형성과 진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각종 종교에 대한 전시적 기법은 공간적인 확산의 내용뿐만 아니라 時間的인 重疊性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샤머니즘과 관련된 문화, 불교와 관련된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重層的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중성이라는 표현보다는 重層性(multi-layeredness)이라는 표현이 시간적인 누적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3. 新[한반도 문화] 전시에 제시된 몇 가지 문제점

좁은 면적에 歷史性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문화전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자로서 등장한 필자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발전되어나갈 전시실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아마도 이미 전시기획자에 의해서 고민거리로 등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첫째, 기존 전시의 최대한 활용이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전시실 중앙에 있었던 濟州島民家를 오키나와 전시실 쪽으로 옮김으로서 조선반도의 문화

延長する道であると考えられる。

第2に、今後、植民地時代の文化と海外韓国人（中国朝鮮人、中央アジア高麗人などの集団）の文化に関する展示を計画している展示企画者の意図に対し十分な共感を持つ。しかし、何をどのように展示するかという問題には、大きな注意を要するだろう。前者は植民地主義の人類学的研究の蓄積を基礎として展開され、後者は種属性（ethnicity）と周辺文化の性格に関する研究の蓄積によって可能で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研究とその結果としての展示の間には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がある。研究結果は立派に表れても、その結果を「もの」を通じていかに展示するかという問題であり、これに関しては極めて気になる。この問題は文化変動と文化接変の現象を博物館が如何に対処するかという、非常に実験的で未来指向的な問題であると思われる。この部分に対し、展示企画者の意見をお聞きしたい。

第3に、展示企画者は韓国の現代文化を含もうとする意図を新たな展示の最も重要な目標としているようである。この点において朝鮮半島に関して避けることのできない部分が「戦争」と「分断」である。ことに今回の展示は小・中学生を主な対象者として設定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日本社会と韓国社会の著しい違いに対する情報を提供する意図があるならば、韓国社会の軍事文化問題を必ず言及すべきであっただろう。つまり、分断と統一に関する展示の内容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れがあればこそ、“在日韓国人・朝鮮人”という複雑な用語の意味もよりやさしく伝達されるだろう。その上にまた、小・中学生にとって戦争という問題は朝鮮半島に対する認識の範疇において非常に重要であると思われる。今後、“13. その他”の項目が、この部分の展示のための空間に配慮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 4. 小結

壁に文字を使ってものを説明しようとするかわりに電子ガイドが立体的な映像を使って解説する体制が導入された。これは新しい展示技法によって「もの」との対話を誘導する方法として博物館の電子化を目指すことと考えられる。

新たな展示室に対し、簡単に整理すると、既存の物質文化の部分に宗教と儀礼の部分強化すると同時に通時性（diachronicity）を加えることによって歴史性を与えている。したがって構造的展示から構造史的展示へ変貌している展示企画者の意中を読むことができる。これは朝鮮半島の文化を理解するための重要な視覚の変化であると思われる。民族学的立場からみた文化研究において排除されてきたのが歴史性であると



를 보는 비교기준을 설정하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그 시도의 의도에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 쪽과의 비교를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왕에 비교의 관점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틀을 보여주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민가를 남으로 확장시키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샤머니즘은 북으로 연장하는 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앞으로 植民地 時代의 문화와 해외 한국인(조선인, 고려인 등의 집단들)의 문화에 관한 전시를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시기획자의 의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어떻게 전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한 주의를 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자는 식민지주의 인류학적 연구의 축적을 기초로 하여 전개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종족성(ethnicity)과 주변문화의 성격에 관한 연구의 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와 그 결과로서의 전시라는 문제는 또 달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는 훌륭하게 수행되었지만, 그 결과를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전시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궁급해진다. 이 문제는 文化變動과 文化接變의 현상을 박물관이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하는 매우 실험적이고도 未來指向의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기획자의 계획을 듣고 싶다.

셋째, 전시기획자는 한국의 현대문화를 포함하려는 의도를 새로운 전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조선반도에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戰爭과 分斷의 문제다. 더군다나, 이번의 전시는 초중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의 현격한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한국사회의 軍事文化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단과 통일에 관계되는 전시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있음으로서 “在日韓國人, 朝鮮人”이라는 복잡한 용어의 의미도 보다 쉽사리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초·중학생에게 전쟁이란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의 범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13. 그 외”의 항목이 이 부분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배려되기를 기대한다.

#### 4. 小結

벽면에 문자들을 동원하여 물건을 설명하려고 했던 패널이 사라지면서 전자가이드가 입체적인 동영상으로 해설을 하는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것

度々指摘されたことを理解するならば、歴史的事実が長い間累積してきた朝鮮半島の文化を理解するには、歴史性の軸を重要な分析の観点として用いることは正しい観点への変化であると思われる。共時性から通時性へ展示の概念が拡散していることは、過去 17 年間の研究の蓄積を反映するものと理解される。質的に高い水準の研究が行われた結果がある故に、展示の概念が拡張す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過程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のが、今回展示のもう一つの収穫である。

表象化した朝鮮半島の展示を通じて理解できる朝鮮半島の「現実」と「実際の現実」を比較する際に、観覧者の立場から二つが連携した問題点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いわゆる‘一族二国’体制を維持している朝鮮半島の政治的現象と、それと関連した分断と軍事化現象に関する展示がされていない構成であることだ。この問題は今後、政治的状況の変化とは別に、2000 年現在の現実を再構成するという点から補うべき点であると考えている。

最後に、今回の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が過去の展示と基本的な違いを持つ点は、民族学的な展示だけを目指すのではなく、博物館学的な展示の内容を加えていることである。朝鮮半島の異文化をいかに理解するかという民族学的な問題を中心としたのが過去の展示であったとするならば、新たな展示によって朝鮮半島の異文化を「もの」を通じていかに表象化するのかという博物館学的な観点が結合した成果を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博物館民族学 (museum ethnology) が蓄積した研究結果と展示の形態として成功に至る過程を習うことができる。

#### 参考文献

朝倉敏夫 2000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祖父江孝男 1984 「東アジア(朝鮮半島の文化)展示」『国立民族学博物館十年史』

Wissler, Clark 1923 “Man and Culture”

은 새로운 전시기법이 물건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박물관의 전자화를 기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전시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존의 物質文化 부분에 宗教와 儀禮의 부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通時性(diachronicity)을 부가함으로서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構造的 展示에서 構造史的 展示로 변모하고 있는 전시기획자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민족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문화연구에 있어서 쉽사리 배제되어온 것이 역사성이라는 점이 흔하게 지적되어온 점을 이해한다면, 역사적 사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조선반도의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역사성의 축을 중요한 분석의 관점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공시성에서 통시성으로 전시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난 17년간의 연구 축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질적으로 수준높은 연구가 수행된 결과가 있기에 전시의 개념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전시에 표상화된 조선반도의 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선반도의 현실과 실제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관람자의 입장에서 두가지 연계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위 ‘一族二國’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치적 현상과 그러한 문제와 연관된 분단과 군사화의 현상에 관해서 전혀 느낄 수 없도록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변화와는 관계없이 이천년 현재의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에 제시된 新한반도 문화전시가 과거의 전시와 기본적인 차별성을 갖는 점은 民族學的인 展示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博物館學的인 展示의 내용을 가미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異文化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민족학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과거의 것이었다면, 새로운 전시는 조선반도의 이문화를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表象化할 것인가 하는 박물관학적인 관점이 결합된 성과를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민족학이 축적된 연구결과와 전시의 형태로 성공하고 있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 참고문헌

- 朝倉敏夫 2000 「新"朝鮮半島の文化"展示」 mimeo.  
祖父江孝男 1984 「東아시아(朝鮮半島의文化)展示」 國立民族學博物館10年史  
Wissler, Clark 1923 *Man and Culture*.